

»» 봄철 육용종계 사양관리 포인트

## 주령별 주요 사양관리 포인트 체크로 종란품질, 산란율 유지



유 한 진  
(주)조인 상무/축산기술사

### 1. 육용종계 육성기 관리

종계 육성장의 목표는 육성율이 아니라, 성계장에서 산란을 잘하는 닭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계란이 아니라 종란을 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종계로 키워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수정율이 높아야 하며 중지율은 낮아야하고 발생된 병아리는 강건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르게 키우는 것이다. 균일도 향상을 위해서는 적절한 사육밀도를 유지해야 하며, 넓혀주기를 한 템포 빠르게 실시하여야 한다. 균일도가 목표한 만큼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그냥 성계장에 투입하지 말고 체중별로 재분류 하여 성계장으로 이동한다. 육용종계에서 병아리 수용수수를 결정할 때에는 평당 수용수수나 급수기 개수보다, 급이기 개수를 가장 우선시 하여야한다. 급이기 구멍수만큼 수용(동시급이 가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지 말고 목표를 높게 잡는 것이다. 균일도 90% 이상을 목표로 잡아보자.

### 2. 20주령~28주령 종계의 관리

#### 1) 이동 및 안정

닭을 이동 후 점등시간과 조도가 육성기 보다 증가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조기점등은 피크 산란율이 낮고 난중이 작아서 병아리

품질저하를 초래하며, 산란지속성도 낮다. 조도 조절이 어렵다면 전구를 일부만 켜고 나머지는 소등 한다. 소등이후 닭을 슬랫 위로 올려주는 작업을 실시하여 소등이후 95% 이상의 닭들이 슬랫 위로 올라가도록 훈련한다.

## 2) 약추분리

균일도가 높던 낫던 약추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평사라면 1동에 들어갈 수수만큼 약 추를 분류하여 별도로 입시한다. 케이지의 경우에는 벽쪽 1~2단에 넣어둔다. 육성사에서 분류한 이후 성계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 성계장에서 재분류한다. 한 농장의 높은 성적을 결정짓는 것은 질병예방과 체중별 분리하여 관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 3) 점등자극

점등자극은 목표체중 도달에 따라 점등자극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체중이 미달된 닭들은 체성장을 기다려 준 연후에 점등자극을 시작한다. 균일도가 낫은 닭을 일령이 도달했다고 점 등자극을 한다면 낫은 피크산란율과 HH종란 생산수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평사의 경우 동별로 체중도달에 따라 점등자극을 하면 된다. 케이지의 경우 약추를 벽쪽 하단으로 몰아 주고 전구를 소등한 이후 다른 라인은 점등자극을 실시한다. 이후 약추라인의 체중이 2,360g 이상으로 도달되면 전구를 켜주어 점등자극이 되게 한다. 비록 점등시간은 증가되더라도 조도 가 낫다면 점등자극이 약해서 지연시키는 효과가 충분하다.



## 4) 암수 분리급이 농장의 관리

평사에서 암수 동일한 급이기에서 사료를 섭취하다 수탉의 벼슬이 나오면서 암탉급이기에서 먹지 못하는 시기가 되면, 수탉사료의 급이량을 권장량 보다 2~3g 빠르게 증량해야 한다. 암탉의 경우 수탉에게 빼앗기던 사료를 모두 섭취할 수 있게 되면서 증량을 권장량보다 천천히 하여야 한다. 모든 것은 체중과 증체량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5) 방란 줄이기

입사 초기에 깔짚을 너무 두껍게 깔지 않는다. 5~7cm가 적당하며, 산란율 50% 이후에 깔짚을 보충한다. 산란초기에 방란을 자주 수거하는 것

이 중요하며 오전에 5~7회, 오후에 3~5회 방란을 수거한다. 난상에 샛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집란밸트 아래에 바람막이를 꼭 설치해야 한다. 방란은 1% 이하로 낮출 수 있다.

### 3. 27주령~30주령인 종계의 관리

사양관리 지침서에 있는 사료 권장량 도표는 현재 내 농장의 닭에게 알맞은 급이량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건에서 알맞은 것일 뿐이다. 온도(계절과 지역 감안), 체중, 주간증체량, 난중, 산란율, 섭취시간 등에 따라 계사별로 급이량과 증량수준을 달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일 난중측정과 섭취완료 시간, 주말 체중측정은 반드시 실천하여야 하며 주간 증체량을 분석하여 적용한다.

피크 사료량은 농장과 계절, 체중 등 상황에 따라 달라야 하며, 매 계군에 따라 고정된 피크 사료량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때 그때 달라요” 하는 것이 정답이며 닭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을 하지 못하는 닭이지만 관리자와 책임자에게 닭들은 끊임없이 필요한 사료량을 이야기 하고 있다. 체중과 증체량, 난중, 산란율, 섭취시간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4. 30주령~40주령인 종계의 관리

#### 1) 피크 산란율이 낮을 경우

산란율이 기대치 보다 낮더라도 체중과 난중이 권장량 대비 낮지 않다면 추가증량은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체중이 권장량 보다 높은 계

군에서 뒤늦게 체중을 관리한다고 급이량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커진 체중으로 인해 난중은 크고 유지에너지는 증가하였기 때문에 산란을 위한 영양소 부족으로 산란율이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

#### 2) 사료감량은 반 템포 빠르게

사료감량 권장량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사료감량은 권장량 보다 반 템포 빠르게 실행한다. 사료감량의 폭을 결정할 때에도 역시 닭의 상태(계사내 온도, 체중, 증체량, 산란율, 난중, 섭취시간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육용종계 관리는 체중관리가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체중과 난중측정을 하지 않는 것은 사료감량을 위한 기준점을 잊어버리게 된다. 사양관리 지침서만 따라서 한다고 해도 결코 높은 생산성은 기대할 수 없다.

### 5. 41주령 이후 관리

#### 1) 사료감량 및 난중억제

30~40주령 관리처럼 사료감량은 반템포 빠

표 1. 주령별 무정율 및 배부율(41주령에 10%, 49주령에 10% 수탉교체)

| 주령 | 무정율(%) | 배부율(%) |
|----|--------|--------|
| 30 | 3.1    | 88.2   |
| 35 | 2.4    | 89.2   |
| 40 | 3.2    | 88.1   |
| 45 | 4.2    | 86.0   |
| 50 | 6.3    | 82.3   |
| 55 | 7.2    | 80.4   |
| 60 | 9.5    | 76.4   |

르게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간증체는 거의 정체 되어도 무방하며, 난중을 엄격히 관리하여 야 종란율과 부화율 급락을 막을 수 있다. 종계 후기사료로 교체하는 것도 검토하며, 가능한 교체해 준다. 사료교체를 실행할 경우에는 교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한번에 교체하지 말고 섞어 먹이면서 서서히 교체한다.

## 2) 수탉관리

수탉교체는 42~45주령 사이에 주로 실시하며, 새로 투입하는 수탉은 골격과 체격이 당당 해져 기존의 수탉과 경쟁할 수 있는 27주령 이후에 투입하여야 한다. 수탉을 도태할 때에는 약추와 더불어 지나치게 과비된 수탉도 함께 도태한다.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을수 있었다.

2015년에 경험한 사항을 공개하자면 한번에 수탉을 전면교체 하는 것보다 나누어 교체한 것이 훨씬 안정적이었다. 41주령에 약10%, 49주령에 약10%를 교체하였다. 결과는 표1과 같이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봄철은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여서 유지에너지가 감소하는 시기이다. 사료감량을 제때하지 않을 경우 갑자기 체중과 난중이 증가하면서 산란율이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 일기예보와 계사내 온도상황에 따라 사료감량이 늦지 않도록 하여야 종란품질과 산란율을 유지할 수 있다. 결국 사양관리의 기본은 담당자와 책임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제공하여 닭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좋은 성적과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일 것이다. 양계



농장주와 같은 마음으로 청소해드립니다.

# 자동화계사 청소대행

부성축산

대표 : 이 재 완

대구시 북구 관음동  
TEL : (053) 324-7752  
FAX : (053) 324-7736  
H·P : 011-518-7752  
010-4000-9023